

한국과 서구의 가구 용어 비교 연구 - 전통 찬장을 중심으로 -

문 선 옥, 장 현 영[†]

경상대학교 환경재료과학과

A Study on Comparison of Korean and Western Furniture Terminology - Focusing on Traditional Cupboard -

Sun-Ok Moon, Hyun-Young Ja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Forest Materials Science,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NU,
Jinju, Gyeongsangnam-do 660-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focuses a comparison of Korean and Western Furniture culture on traditional cupboard terms to make the people understand and distinguish the form of the various Korean and Western cupboard made by the craftsmanship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result, the Korean cupboard shows *Kangwon Chanjang*/cupboard, *Gyeonggi Chanjang*/cupboard by the local name, *dwiju Chanjang*/cupboard, three-tiered *Chanjang*/cupboard, four-tiered *Chanjang*/cupboard, two-tiered *Chantak*/cupboard, three-tiered *Chantak*/cupboard in the terms of the form. Korean cupboards are called *Chanjang* and *Chantak*. The Western cupboard shows cupboard, buffet, livery cupboard, cupboard-bed, corner cupboard, court cupboard, turkey-breast cupboard, pot cupboard, press, press cupboard, hall cupboard, sideboard, hunt sideboard, hunt-board, cabinet, corner cabinet, writing cabinet, art cabinet, china cabinet, dresser, safe, meat safe, wall closet, wall cupboard, hanging corner cupboard, food cupboard in the terms of the various forms.

Keywords: terms, Korean and Western traditional cupboards, *chanjang*, *chantak*

1. 서 론

오늘날 부엌 가구에 영향을 준 서구 및 한국의 전통 부엌 가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및 식기를 보관하는 산업화 이전 수공예로 만들어진 찬장에 관하여 용어를 중심으로 형태, 쓰임새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가구는 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부엌용 가구, 공공용 가구 등으로

분류되며 한국 전통 가구는 주로 안방 가구, 사랑방 가구, 부엌 가구 등으로 분류되었다. 한국 전통 부엌 가구는 주로 음식을 보관하는 찬장과 식기를 놓아두는 찬탁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면서 발전하였다. 반면에 주로 유럽 가구로부터 온 서구의 전통 찬장은 다양한 형태에 따른 다양한 찬장 용어를 발전시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전통 찬장은 찬장, 뒤주 찬장, 찬탁 등의 용어가 있는 반면에, 서구의 전통 찬장은 일반적으로는 커보드(cupboard)로 알려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주로 빵을 보관을 위한 리버리 커보드(livery cupboard),

2013년 10월 4일 접수; 2013년 10월 24일 수정; 2013년 10월 25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장 현 영 (somoon@gnu.ac.kr)

구석에 맞게끔 만들어진 코너 커보드(**corner cupboard**), 보관과 전시를 위한 코트 커보드(**court cupboard**) 등으로 형태 및 용도에 따라 용어도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전통 찬장과 비교하여 이러한 서구의 다양한 찬장 용어를 식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찬장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표를 둔다. 한국 전통 찬장은 현존하는 찬장, 문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구의 찬장은 문헌, 수입 앤틱(**antique**) 가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능하면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의 방법과 산업화 이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찬장으로 범위를 정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서구의 전통 찬장의 역사를 통하여 종류, 형태, 쓰임새 등을 중심으로 찬장 용어 비교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2. 한국과 서구의 전통찬장 역사

2.1. 부엌 가구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좌식 생활에 맞추어 주방은 식사를 하는 공간과 따로 떨어져 난방과 취사만을 위한 공간으로 음식과 식기 등을 보관하기 적합한 찬장, 찬탁, 뒤주 등이 발달하였으며 음식을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은 탁자 형태의 소반이 발달하였다(이 1996, p. 349). 찬장이나 찬탁은 서구의 경우 커보드(**cupboard**)이며, 찬장은 주로 음식을 보관하고 찬탁은 주로 유기나 사기그릇을 쌓아두었으며 뒤주는 쌀 등의 곡물을 보관하고 식탁 역할을 한 소반과 함께 한국전통 주방의 대표적인 가구이다(남 2008, p. 23). 따라서 한국전통 부엌은 주로 소반, 찬장, 찬탁, 뒤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지박, 소쿠리, 채 등을 벽에 걸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존하는 한국전통 부엌 가구는 19세기 전·후반으로 추론되는데 19세기 이전의 목가구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이 1996, p. 347) (이 1986, p. 112).

서양의 부엌은 입식생활에 따라 대부분 취사와 함께 식당과 거실의 개념을 겸비한 공간으로 한국 전통 부엌에 비하여 동선이 간편하였다. 빵 등의

음식과 접시 등을 보관하기 위한 높고 낮은 찬장 형태의 뷔페(**buffet**), 프레스 커보드(**press cupboard**), 코너 커보드(**corner cupboard**) 등으로 불리는 찬장, 식탁과 의자 등이 주로 부엌 가구이다. 부엌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이나 그릇을 놓고 이동하기 편리한 낮은 형태의 뷔페, 셀러레트(**cellarette**), 크레덴자(**credenza**), 헌트 사이드보드(**hunt sideboard**), 홀 커보드(**hall cupboard**, 헌트보드), 사이드보드(**sideboard**) 등의 커보드가 발달되었다(Voyce 1988) (Blakemore 1997).

2.2. 한국 전통찬장

찬장은 찬탁과 함께 음식 및 식기를 보관하는 장 종류 가구의 하나로 사기나 유기그릇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 굵은 기둥과 두꺼운 판재를 사용하여 튼튼한 짜임과 견고한 무쇠장식을 사용하였다. 주로 소나무, 느티나무, 참죽나무 등을 이용하여 문판이 크고 형태상 옷장과 비슷하며 대부분 이층, 삼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판은 대부분 판재로 제작하나, 살문위에 한지를 바른 찬장도 있다(국립박물관 2004, p. 8).

지역별로 나타난 강원 찬장, 경기 찬장으로 강원 찬장은 주로 가로로 넓은 형태가 많으며 문이 미달이로 이루어져 있고 강원도에 제작된 찬장을 말한다. 경기 찬장은 주로 이·삼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층의 문은 미달이로 이루어져 4짝이 모두 이동이 가능하거나 경첩으로 연결되어 4짝을 모두 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뒤주 찬장은 뒤주와 찬장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주로 위층에 쌀을 넣고 아래 칸은 찬장 역할을 한다. 사층 찬장은 여달이문과 미달이문이 혼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3층의 미달이 살문은 한국 전통 창호인 근자 형에 한지를 발라 통풍의 용이와 해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층 찬장 또한 한지를 바른 살문의 여달이문이고 이러한 찬장은 用자창, 근자창, 亞자창, 匹살창의 형태인 한국 전통 창호에 기초한다(이 1996, p. 363). 찬탁은 사방이 막힘이 없는 개방형 3층 탁자와 일반적인 찬탁과는 달리 층널이 밖으로 확장되어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층 또는 하층에 여달이문의 기장을

Table 1. The type of traditional Korean cupboard

Term	강원 찬장 : Kangwon <i>Chanjang</i> /cupboard	경기 찬장 : Gyeonggi <i>Chanjang</i> /cupboard	뒤주 찬장 : Dwiju <i>Chanjang</i> /cupboard
Cupboard			
Term	이층 찬장 : Two-tiered <i>Chanjang</i> /cupboard	삼층 찬장 : Three-tiered <i>Chanjang</i> /cupboard	사층 찬장 : Four-tiered <i>Chanjang</i> /cupboard
Cupboard			
Term	이층 찬장 : Two-tiered <i>Chanjang</i> /cupboard	이층 찬장 : Two-tiered <i>Chanjang</i> /cupboard	이층 찬탁: Two-tiered <i>Chantak</i>
Cupboard			
Term	삼층 찬탁 : Three-tiered <i>Chantak</i> /cupboard	삼층 찬탁 : Three-tiered <i>Chantak</i> /cupboard	삼층 찬탁 : Three-tiered <i>Chantak</i> /cupboard
Cupboard			

넣은 다양한 기장형의 3층 찬탁들이 있다. 이러한 것은 골재로 구성된 찬탁의 반복되는 형태 구조에 세심한 비례분할과 함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이 1996) (Table 1 참조).

따라서 Table 1에서 보듯이 한국의 전통 찬장은 크게 찬장, 뒤주 찬장, 찬탁의 3종류로 나타나며, 지역별로 강원 찬장, 경기 찬장 등이 나타나고, 이층 찬장, 삼층 찬장, 사층 찬장, 뒤주 찬장, 이층 찬탁, 삼층 찬탁 등의 다양한 구조를 보인다. 찬장은 미닫이와 여닫이문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찬탁은 개방형과 기장형 형태의 구조를 보인다.

2.3. 서양의 전통 찬장

다채로운 찬장의 역사를 보이고 있는 서구의 찬장은 일반적으로 커보드(cupboard)라고 불리며 주로 참나무나 호두나무를 사용하였으며 고딕(gothic) 시대부터 커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상자형 수납 가구인 체스트(chest)가 이를 대신하였으며 부차적인 가구로 여겼다. Cupboard 영어의 의미처럼 조립으로 된 선반에 컵 등을 전시하는 것을 말하며 중세시대에는 뷔페(buffet)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Table의 허치(hutch)는 체스트(chest) 또는 코퍼(coffer)로 간이 탁자 형태인 뷔페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피너클 허치(pinnacle hutch)처럼 허치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윗부분이 주로 개방형 선반이 있는 서랍장이다. 이후 좀 더 정교한 코트 커보드 1 (court cupboard 1), 코트 커보드 2 (court cupboard 2), 크레덴스(credence), 프레스 커보드(press cupboard) 등의 순서로 그리고 개방형에서부터 문으로 에워싸이는 형태의 커보드로 발전하였다(Voyce 1988, pp. 77, 146).











Table 2에서 보듯이 그 특징을 살펴보면 초창기 커보드로 보여지는 벽에 달아 놓고 사용하는 커보드(hanging cupboard), 리버리 커보드(livery cupboard)는 빵을 보관하기 위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장식적으로 환기 구멍을 주어 빵의 오랜 보관을 용이하게 하였다. 뷔페(buffet)는 중세 나타난 커보드로 실질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한 드레서 1 (dress 1)과는 달리 식사를 서빙하기 보다는 부엌에 있는 접시 등을 전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Lucie Smith, p. 14). 코트 커보드 1 (court cupboard 1)은 중세와 르네상스 가구 형태로 주로 3단으로 이루어져 조각이 정교하게 장식된 값비싼쟁반을 전시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 코트 커보드 2 (court 2)는 영국과 미국에서 유행한 가구로 아래쪽은 뚫려 있고 위쪽은 문이 있어 진열과 보관을 할 수 있었고 식사를 위하여 음식을 운반하는 크레덴스(credence)로 알려졌고 중세의 프레스(press)로부터 알려진 프레스 커보드(press cupboard)에 영향을 미쳤다. 음식을 접대하는데 사용한 크레덴자(credenza)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커보드로 프레스 커보드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Voyce 1988, pp. 39, 71, 74, 75, 89, 229, 230, 274).

18~19세기에 사용된 커보드를 살펴보면 셀러레트(CELLARETTE), 사이드보드(sideboard), 헌트 사이드보드(hunt sideboard), 홀 커보드(hall cupboard), 헌트보드(huntboard), 포트 커보드(pot cupboard) 등이 있다. 셀러레트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와인 등의 술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체스트(chest)의 일종이었으며, 식당의 벽에 붙여서 음식이나 음료를 접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사이드보드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헌트보드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벽에 길게 붙여 놓은 긴 탁자를 말하고, 헌트 사이드보드는 서랍 혹은 커보드가 헌트보드에 첨가하여 보통의 사이드보드에 비교하여 높이가 높고 폭이 좁았다. 그리고 포트 커보드는 커보드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찬장 용도가 아닌 특이하게도 두 층으로 되어 아래 층에는 실내 변기를 넣어 두고 세면기와 주전자를 위쪽 안에 보관하였다(Voyce 1988, pp. 52, 75, 134, 145, 228, 230) (Table 2 참조).

따라서 이상에서 보듯이 서구의 커보드 형태는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 및 용도를 보이며 이에 따른 드레서(dresser), 세이프(safe), 미트 세이프(meat safe), 월 크로짓(wall closet), 월 커보드(wall cupboard), 행잉 코너 커보드(hanging corner cupboard), 푸드 커보드(food cupboard)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부터 다채로운 용어를 보인다.

Table 2. Types of the traditional Western cupboard

Term	Cupboard	Term	Cupboard
리버리 컵보드 : livery cupboard; bread cupboard		로마네스크 컵보드 : romanesque cupboard	
리버리 컵보드 : livery cupboard; Gothic cupboard		컵보드 : hanging cupboard	
뷔페 : buffèt 컵보드 : cupboard; credenza		허치 : pinnacle hutch	
뷔페 : court buffet		프레스 컵보드 : press cupboard	
코트 컵보드 1 : court cupboard (1)		코트 컵보드 2 : court cupboard (2)	

후면에 계속

Table 2. Types of the traditional Western cupboard







Term	Cupboard	Term	Cupboard
<p>커보드 : cupboard</p>		<p>커보드 : cupboard</p>	
<p>코너 커보드 : corner cupboard</p>		<p>포트 커보드 : pot cupboard; commode; night stand</p>	
<p>셀러레트 : wine/beverage cellarette</p>		<p>크레덴자 : credenza</p>	
<p>헌트 사이드보드 : hunt sideboard</p>		<p>홀 커보드 : hall cupboard</p>	
<p>헌트보드 : huntboard; hunting board; hunt table; hunting table</p>		<p>사이드보드 : sideboard</p>	

Table 3. Types of contemporary cupboard

<p>인아트(Inart) 허치(hutch)/사이드보드(sideboard)</p>	<p>카사미아(Casamia) 장식장</p>	<p>카사미아(Casamia) 장식장</p>
		
<p>아이키아(IKEA) 유리문캐비닛(Glass-door cabinet)</p>	<p>아이키아(IKEA) 유리문캐비닛(Glass-door cabinet)</p>	<p>아이키아(IKEA) 유리문캐비닛(Glass-door cabinet)</p>
		
<p>아이키아(IKEA) 유리문캐비닛(Glass-door cabinet)</p>	<p>아이키아(IKEA) 유리문캐비닛(Glass-door cabinet)</p>	<p>리바트(Livart) 수납찬장</p>
		
<p>한샘(Hanssem) 주방수납장</p>	<p>한샘(Hanssem) 주방수납장</p>	<p>한샘(Hanssem) 렌지대</p>
		

Table 4. A comparison of the traditional Korean and Western cupboard terms

Classification	Korean cupboard	Western cupboard
Forms of cupboard	찬장 : <i>Chanjang</i> /cupboard, 뒤주 찬장 : <i>Dwiju Chanjang</i> /cupboard, 찬탁 : <i>Chantak</i> /cupboard	커보드 : cupboard, 리버리 커보드 : livery cupboard, 프레스 커보드 : press cupboard, 뷔페 : buffet, 코트 커보드 : court cupboard, 코너 커보드 : corner cupboard, 포트 커보드 : pot cupboard, 셀러레트 : cellarette, 크레덴자 : credenza, 헌트보드 : huntboard
Types of cupboard	강원 찬장 : Kangwon <i>Chanjang</i> /cupboard, 경기 찬장 : Gyeonggi <i>Chanjang</i> /cupboard, 이층 찬장 : Two-tiered <i>Chanjang</i> /cupboard 삼층 찬장 : Three-tiered <i>Chanjang</i> /cupboard 사층 찬장 : Four-tiered <i>Chanjang</i> /cupboard 뒤주 찬장 : <i>Dwiju Chanjang</i> /cupboard 이층 찬탁 : Two-tiered <i>Chantak</i> 삼층 찬탁 : Three-tiered <i>Chantak</i> /cupboard	커보드 : cupboard; hanging cupboard, 리버리 커보드 : livery cupboard; bread cupboard, 뷔페 : buffet, court buffet, 허치 : hutch, pinnacle hutch, 드레서 1 : dresser 1, 프레스 : press, 프레스 커보드 : press cupboard, 코트 커보드 1 : court cupboard (1), 코트 커보드 2 : court cupboard (2), 코너 커보드 : corner cupboard, 포트 커보드 : pot cupboard; commode; night stand, 셀러레트 : wine/beverage cellarette, 크레덴자 : credenza, 헌트 사이드보드 : hunt sideboard, 홀 커보드 : hall cupboard, 헌트보드 : huntboard; hunting board; hunt table; hunting table, 사이드보드 : sideboard, 터키 브레스트 커보드 : turkey-breast cupboard 크레덴자 : credenza, 크레덴스 : credence

2.4. 현대가구에 나타난 찬장

오늘날 국내·외 가구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찬장을 살펴보았다. 인아트, 카사미아, 아이키아(Ikea), 리바트, 한샘 등의 가구회사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이동식보다는 부엌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엌의 규모에 따라서 세트(set) 개념을 시스템적으로 두 개 이상을 붙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식적이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활용도가 높도록 디자인된 경향이 있었다. 국내·외 찬장은 주로 고정식으로 대부분 회사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용도에 맞는 실용적 현대적 찬장 용어를 만들어서 허치/사이드보드, 장식장, 유리문캐비닛(glass-door cabinet), 수납찬장, 주방수납장, 렌지대 등으로 불리고 있었다(Table 3 참조). 그러나 인아트의 허치/사이드보드(hutch/sideboard)는 Table 2에 있는 그 용어와 디자인이 피너클 허치(pinnacle hutch)로 부터 온 것으로 고려된다. 물론 Table 3에 나타난 현대식 찬장 외에 Tables 1과 2에서 본 찬장은 꾸준히 전통공방 등에서 주로 수공예로 생산 중이며 전통 가구 또는 클래식 가구

(classic furniture)로 불리며 중요한 현대가구의 한 경향이다.

3. 한국과 서양의 전통 찬장 비교

3.1. 한국 및 서양의 전통 찬장 용어

한국과 서구의 전통 찬장 용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 찬장의 형태별과 종류별 분류로서 한국의 전통 찬장의 형태별로 보면 찬장, 뒤주 찬장, 찬탁으로 나타나며, 서구의 찬장은 커보드, 리버리 커보드, 프레스 커보드, 뷔페, 코트 커보드, 코너 커보드, 포트 커보드, 셀러레트, 크레덴자, 헌트보드 등으로 나타난다(Table 4 참조). 종류별 용어를 살펴보면 한국 전통 찬장의 용어는 강원 찬장, 경기 찬장과 같이 지역을 나타내고, 이층 찬장, 삼층 찬장, 사층 찬장, 뒤주 찬장, 이층 찬탁, 삼층 찬탁 등으로 나타난다. 서구의 전통 찬장 용어는 커보드, 리버리 커보드, 뷔페, 코트 뷔페, 허치, 피너클 허치, 프레스, 프레스 커보드, 코트 커보드 1 & 2, 코너 커보드, 포트 커보드, 셀러레트, 크레덴자, 헌트 사이드보드, 홀 커보드, 헌트

보드, 사이드보드, 터키 브레스트 커보드, 크레덴자, 크레텐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Table 4 참조). 따라서 한국 전통 찬장은 다양한 구조를 보이나 크게 3가지 형태로 용어에서도 이·삼·사층 찬장 및 탁자로 나타나는 것은 19세기 이전의 목가구는 거의 남아 있지가 않아 알 수 없기 때문이다(Table 1 참조). 그러나 서구는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온 산업화 이전 전통가구들이 문헌 및 실물로 남아있으며 특히 유럽 전역에서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을 나타낸 중세 시대부터 발전 및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료된다(Table 2 참조).

3.2. 한국 및 서양의 전통 찬장 형태

한국과 서구의 전통 찬장 형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 전통 찬장은 주로 이·삼사층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개의 면이 닫힌 형태와 찬탁처럼 선반만으로 이루어진 개방형이 있으며, 문은 미닫이, 여닫이, 서랍의 복합적 구성은 거의 나타나며, 뒤주 찬장의 경우는 대부분 이층으로 상층은 주로 쌀 등의 곡물을 보관하고 아래층은 찬장의 기능을 하였다. 반면에 서양의 찬장은 다양한 단층으로부터 이·삼층의 찬장, 리버리 커보드나 행잉 커보드처럼 올려놓거나 걸어놓을 수 있는 찬장, 네 면에 막혀 있는 찬장과 선반으로 이루어진 개방형이 있으며, 문은 대부분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이 있고 크고 작은 서랍이 함께 구성되어있다(Table 5 참조).

통풍을 위하여 한국 전통 찬장이 문살에 한지를 사용한 반면에 서구의 전통 찬장은 빵을 보관하기 위한 브레드 커보드라고도 불리는 리버리 커보드에서 보는 것처럼 투각을 하여 통풍을 의도하였다. 한국 전통 찬장은 각 층이 대부분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같은 크기의 층이 반복되고 전체적인 형태가 대부분 직사각형으로 간간이 정사각형이 나타난다. 반면에 서양의 전통 찬장은 좌·우, 상·하 대칭과 비대칭이 혼합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주로 직사각형이나 코너 커보드같은 찬장은 코너 놓을 수 있도록 뒤쪽이 좁아지며 윗부분이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5 참조).

한국 전통 찬장과 서구의 전통 찬장의 형태는 음

식과 식기를 보관 및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가 뒤로 갈수록 복잡한 구조와 정교한 장식으로 실용과 미를 겸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4. 결 론

오늘날 부엌 가구에 영향을 준 한국 및 서양의 전통 부엌 가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과 식기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산업화 이전 수공예로 만들어진 찬장에 관하여 용어를 중심으로 형태 및 쓰임새를 비교 연구하였다. 한국은 전통 부엌은 음식을 하고 보관하는 공간인 반면에 서양은 식당과 거실을 겸비한 공간이므로 전통 찬장의 형태와 쓰임새에 차이점을 보이며 그에 따른 찬장과 용어의 발전이 나타났다.

다양한 형태를 보이나 단조로운 용어를 보이는 한국 전통 찬장과는 달리 반면에 주로 유럽 가구로부터 온 서구의 전통 찬장은 다양한 형태에 따른 다양한 찬장 용어를 발전시켰다. 한국 전통 찬장 용어는 일반적인으로 찬장, 뒤주 찬장, 찬탁으로 나타나며, 지역별로 나타난 강원 찬장, 경기 찬장과 일반적으로 나타난 이층 찬장, 삼층 찬장, 사층 찬장, 뒤주 찬장, 이층 찬탁, 삼층 찬탁 등의 용어를 보인다. 반면에 서양의 전통 찬장 용어는 커보드, 리버리 커보드, 뷔페, 프레스, 프레스 커보드, 코트 커보드 1 & 2, 코너 커보드, 포트 커보드, 셸러레트, 크레덴자, 헌트 사이드보드, 홀 커보드, 헌트보드, 사이드보드, 터키 브레스트 커보드, 크레덴자, 크레텐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에는 코트 커보드란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크레텐스는 오늘날 식당에서 제단 가까이에 두고 성체 그릇을 놓는데 쓰는 탁자를 말한다.

이러한 용어는 시대별로 형태, 복잡한 구조, 정교한 장식의 발전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음식과 식기를 보관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그릇을 전시하기 위한 가구로도 기능을 하였다. 특히 서양이 경우 뷔페, 허치, 셸러레트, 크레덴자, 크레텐스, 헌트 사이드보드, 홀 커보드, 사이드보드, 헌트보드 등과 같은 한 층/단의 커보드가 다양하게 발전한 것은 음식과 그릇을 놓고 가져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Table 5. Classific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and Western cupboard

Terms	Korean cupboard	Terms	Western cupboard
이층 찬장 : Two-tiered <i>Chanjang</i> /cupboard		리버리 키보드 : livery cupboard; bread cupboard	
이층 찬장 : Two-tiered <i>Chanjang</i> /cupboard		행잉 키보드 : hanging cupboard	
삼층 찬장 : Three-tiered <i>Chanjang</i> /cupboard		뷔페, 허치, 셀러레트, 크레덴자, 크레덴스, 헌트 사이드보드, 홀 키보드, 사이드보드, 헌트보드	
사층 찬장 : Four-tiered <i>Chanjang</i> /cupboard		뷔페 : court buffet	
뒤주 찬장 : <i>Dwiju Chanjang</i> /cupboard		프레스 키보드 : press cupboard	
이층 찬탁 : Two-tiered <i>Chantak</i>		키보드 : cupboard	
삼층 찬탁 : Three-tiered <i>Chantak</i> /cupboard		코너 키보드 : corner cupboard	

기도 하고 쟁반 등의 아름다운 주방용품을 전시하고 부엌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단조로운 한국 전통 찬장 용어에 비하여 다양한 찬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서구는 다양한 찬장 용어를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다양한 형태에 따라 붙여진 용어를 나타낸 다양한 찬장 용어 및 디자인을 파악하여 혼동 없이 미래에 찬장을 공부하고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다음 연구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심도 있는 한국 전통 찬장의 연구를 할 예정이다.

사 사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2-G00013).

참 고 문 헌

- 국립민속박물관. 2004. 목가구, 대원사. 8, 51, 52.
 남경숙, 김자경, 박경애, 이한나. 2008. 한국전통목가구. 한양대학교출판부. 23, 90-94.
 박영규. 2011. 한국전통목가구. 한문학사. 245-267.
 이종석. 1986.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12.
 이춘섭. 1996. 조선조시대 찬장과 찬탁에 대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15: 347, 349, 358.
 Blakemore. 1997. Interior Design & Furni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99.
 Lucie-Smith. E. 1993. Furniture : A concise history. New York : Thames and Hudson Inc. 14.
 Boyce, C. 1998. Dictionary of furniture. New York : Facts on File, Inc. 39, 71, 74, 75, 77, 89, 229, 230, 274.
<http://www.rovers.net/~buckholl/bft.jpg>